살건물돼	Ŀ	보 도 자 료		2025년
智州也上之り村	배포일자	2021년 3월 총 2		수도권매립지 종료 © 인천평역시
담당 도서지원과	담당자	• 해양환경담당 • 담당자	권익범 23 황경찬 2	
사진	□ 없음	음 ■ 있음	참고자료	■ 없음 □ 있음
보 도 일 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해양쓰레기 수거 팔 걷었다.

- 민관 함께 중구 삼목선착장 일원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-
- 사각지대 위주의 수거 활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범위 확대 적극 노력 -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3월 13일 중구 삼목선착장 일원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행사에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, 조광휘 인천시 의원, 윤현모 중구 부구청장,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, 인천시자원 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등 총 60여명이 참여해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폐어구, 폐스티로폼 등 해안 경관을 해치는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.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가자 전원에 대한 발열 검사 및 손 소독을 마친 후 수거 활동을 추진했으며, 활동 중에는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.

- 올해부터 인천시는 유·무인도 등 해양쓰레기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정기적 으로 추진하여 해양쓰레기 관리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
-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"향후 지속적으로 유관단체 및 기관과 협력, 정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인천 앞바다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."고 밝혔다.

〈붙임〉 사진자료





〈3월 13일 중구 삼목선착장 일원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〉